

작년 정부는 경제활력, 민생안정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불용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.

- 2025.6.10. 경향신문은 “윤 정부, 환경·민생·복지 등 예산 안 써 ‘세수 부족분’ 메웠나” 기사에서,
 - 작년 재정불용액이 7조에 육박,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 등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 ‘세수 핑크’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작년 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였습니다.
 - 그 결과, 세수부족과 관련이 없는 사실상 불용은 9.3조원이며,
 - * 사실상 불용(조원) : ('21) 5.2 ('22) 7.4 ('23) 10.8 ('24) 9.3
 - 이 중 예비비(재해 발생이 적어 불용 규모 증가, 2.5조원)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.8조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
 - * 예비비 제외 사업비 불용(조원) : ('21) 5.1 ('22) 6.7 ('23) 7.5 ('24) 6.8

□ 기사에서 언급한 주요 불용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이 아닌 예산편성 후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(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불용)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구매수요 감소 등 9,597억원

○ (의료급여 등 불용) 의료급여(5,000억원)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하였고, 기초연금(3,904억원) 및 생계급여(1,544억원)는 소득인정액 증가 등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,

- 동 사업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	책임자	과 장	이기훈 (044-215-5430)
		담당자	사무관	한재수 (han142857@korea.kr)
담당 부서	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차은철 (044-201-6330)
		담당자	서기관	이세호 (seho@korea.kr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건훈 (044-202-2320)
		담당자	사무관	오상철 (chori73@korea.kr)